

# 사회복지사 206명, 지방정치 진출 5.31 지방선거의 쾌거

지역 사회복지의 꿈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484명 중 206명이 당선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이러한 쾌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정치 역사는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권자연맹 결성, 국민복지당 창당, 총선사회복지공약추진위원회 활동 등 사회복지계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을 정치계로 진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6년을 사회복지정치세력화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정치력이 좌우한다

### 사회복지사 정치세력화 원년 선포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은 월간 Social Work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시작으로 2005년 11월호에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이 좌우한다'라는 제목아래 사회복지계의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해 짚어보고 타 단체의 정계진출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사 정치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어 12월에는 정치참여를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 현 의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사회복지계에서 의원을 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어 2006년 1월에는 사회복지사 출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회의의원, 기초회의의원 43명을 소개하였으며 지난 5월호까지 정치지도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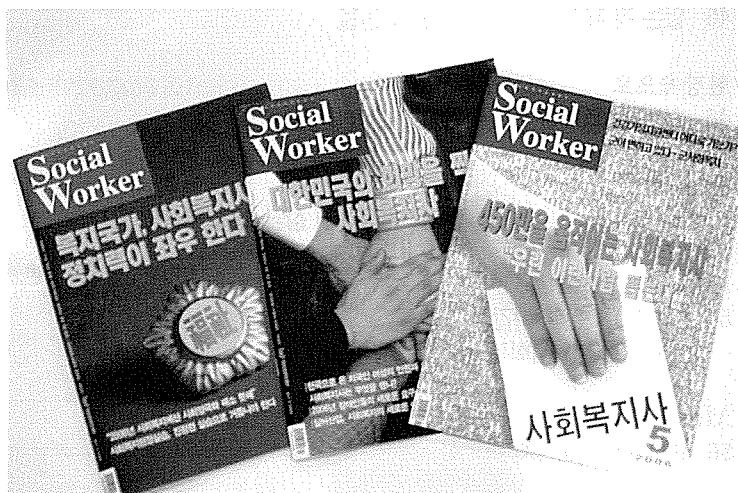
인터뷰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봄으로써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고취하였다.

이외에도 협회는 지난 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사회복지사 국회의원 5명 중 3명, 4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 중 20여명 등 총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갖고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세력화 원년을 선포하였다.

또 전국지방협회 사회복지사 대회 등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중앙과 지방협회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활동 전개

중앙협회 외에 전국의 지방협회에서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에



▲ 월간 Social Worker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신년하례식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대회 등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동참하였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 사회복지와 정치세력간의 협력, 연대라는 측면에서 2006년 1월 하순에 5.31지방선거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열린우리당 비례 대표 1번에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사 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도 '힘 있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현실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5.31 지방선거 경상북도 사회복지정책안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16개 지방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 사회복지 전문가로 사회복지계를 대변할 정치인들

지난 1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사 출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회원이 38명으로 조사된 것을 미루어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이들 사회복지사 출신 정치지도자들이 사회복지현안 문제를 전국에서 사회복지계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실제로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정치적 접근에는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지는 지금까지 희생과 봉사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사회복지계 스스로도 그 안에 안주하여 묵묵히 일해왔으며 사회복지와 정치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심에서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현안 문제를 풀어갈 때 사회복지계를 대변할 정치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계를 대변할 든든한 사회복지사 정치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봉장으로서의 활동 요구

우리는 이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서비스의 주체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복지권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길 요구한다.

사회복지사는 시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과 법 제정, 예산과 정책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과 복지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들이 1인 이상 들어가서 복지사회 건설의 선두에 서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배출된 의원들이 임기기간 동안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지원할 것이다. 